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눈물과 회복, 사랑이 있는 만남

2001 / 페이지 수: 3

지금은 18명의 동반자를 양육한 하 영철 장로는 고인이 된 엄 기연 장로에게 양육을 받았다. 하 장로는 85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누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 재은 목사에게 일대일 양육과정을 배웠지만 첫 양육을 시작했을 때는 다시 구 영철 목사가 인도하는 양육자반에서 한과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주에 양육을 하곤 했다.

일대일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도 어렵고 삶이 고단했었다. 엄 장로는 하 장로의 어려운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주곤 했다. 엄 장로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던 하 장로는 코끝이 붉어지다가 싶더니 이내 두 볼을 눈물로 적셨다. “성경공부보다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상담하는 것이 더 많았고 허물이 없이 모든 것을 털어 놓을 수 있었지요.” 엄 장로는 지난 90년 환갑을 막 지낸 젊은 나이에 소천 하였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난다.

18명을 양육하다보니

하 장로는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양한 성경번역본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곤 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양육을 할 때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 등을 가르치곤 한다. 평생 읽고 묵상할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18명의 동반자와 일대일을 하면서 늘 성실한 동반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부를 많이 했던 박사였던 한 동반자는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했고,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하는 동반자도 있었다. 우물가로 소를 끌고 갈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법.

하 장로가 일대일을 하면서 지키는 원칙이라면 교재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다. 성경암송이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외우라고 한다. 그리고 기도를 훈련시킨다.

일대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더구나 무엇을 공부해서라기보다 삶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 장로에게는 다섯 번째 동반자였던 한 영훈, 유 혜숙 부부 그리고 김 치수 목사. 그중에도 여성스럽고 전도의 열정이 많은 유 혜숙 집사가 사랑스럽다. 일대일을 받을 당시 교사였는데 동료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나 열심이었던지...

94년경, 전도의 열정이 많다고 하 장로가 자랑하는 유 혜숙 집사가 양육을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일대일을 신청하고 난 후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될 분’을 기도하여 하 장로를 만났다. 그랬기에 하 장로가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었다.

건강하세요. 장로님!

늘 푸근한 웃음을 가진 하 장로와의 만남은 언제나 평안했다. 양육공부를 마치고 가시는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배우기도 했다. 돈암동에 있는 콩으로 만든 일품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면서 배부른 만남을 가지곤 했다. 함께 양육 받았던 김 치수 목사는 당시 목회를 위해 준비과정이었는 데 현재 멋진 목사가 되었다.

유 집사는 양육받기로 한 시간에 맞추느라 혈레벌떡 뛰다가 구두굽이 날아간 일, 김 치수 목사가 남편 중학교 후배임을 알고 선배 대접을 받게 된 일도 잊을 수 없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모습 그대로 건강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양육자 장로님 화이팅!” 지금도 다락방 장로님으로 함께 있는 믿음의 선배인 하 장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유 집사는 당시에는 삶의 비전을 놓고 갈등하며 힘들어했던 마음을 나누며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미 기도 응답이 되어 있음에 감사한다. 일대일 양육은 동반자나 양육자가 그분의 그릇으로 함께 만들어져가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믿음의 만남인 것 같다.

교회에 등록하고서도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지 않았던 이 명옥 집사는 한번 전화해준 적이 있는 유 혜숙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늘 바빴지만 양육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입장을 전화로 1시간여 동안 설명하고 유 혜숙 집사의 결정을 기다렸다. 사실 거의 엄포에 가까웠다.

매일 매일 눈물바다

힘든 사정을 들은 유 혜숙 집사는 ‘이 자매를 내가 양육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한다. 유 집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1년여 만에야 양육이 끝났지만 일대일을 받고나면 자신이 많이 변할 것 같다는 느낌은 적중했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내내 가슴에 가득한 아픔을 풀어내느라 한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유 집사도 이 집사 덕에 무척이나 많이 울었다. 한번 만나면 거의 온종일 교제를 나누곤 했다. 기분이 좋아서 즐겁게 웃었던 일은 거의 없다. 그래도 언제나 유 집사를 만나고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 졌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집사의 주인이시지만 양육을 마칠 때 무엇보다 기뻐던 일은 하나님 안에 꼭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일이었다. 그것은 이 집사에게 기도응답이었다.

이 집사는 유 집사가 ‘예수의 향기를 품은 분’이라고 표현한다. 이 집사는 그 덕에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준 김 경희 집사와 함께 유 혜숙 집사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닌,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분이라고 이 집사는 말한다.

이 명옥 집사는 신 경숙 자매와 일대일 양육을 할 때 ‘공홀’함이 마음에서부터 우려나와 자매와 양육을 하는 동안 무척 행복했다. 서로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뻐했다. 마치 육신의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았다.

이 집사는 자신과 일대일을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고 싶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이 집사는 하나님이 일대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기도’ 과정을 배우는데 갑자기 자매가 방언이 터진 일, 자신도 몰랐던 일을 예언하게 된 일 등 부

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이 집사는 일대일과정의 기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기간이라고 말한다. 일대일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삶 속에 녹아드는 말씀

신 경숙 자매는 일대일 연결을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교회에 신청하고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일대일을 포기하고 있던 신 자매는 서빙고공부방에서 아주 우연히 이 명옥 집사를 만났고 일대일 양육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하였다.

혼자 서울에서 살던 신 자매는 이 집사 집에서 나누던 식사와 나눔에 너무나 행복했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마음 상태는 천국이었고, 직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진급, 교육을 통한 좋은 만남, 외국연구를 가게 되었어요”라고 전한다.

일대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신 경숙 자매는 일대일을 하면서 자칫 삶과 말씀이 분리되기 쉬운 일상 속에서 말씀을 녹이고 말씀 속에 삶을 녹이는 작업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다.

신 경숙 자매는 이 명옥 집사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양육의 시간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일대일이 끝나면 파김치가 되곤 했던 만남이 무척 아름답게 기억된다.

가족끼리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일대일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기도가 열심히 지난 호 가족들과 달리 이번에 만난 가족들은 모두 눈물이 많고 양육자에 대한 정이 많은 가족이었다.

만나는 양육자마다 자신을 양육해준 분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기도 하고, 그날의 어려웠던 심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으리라. 일대일을 통해 아픈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 출처 : 온누리신문**